민주 당권경쟁 '한명숙 변수'

무죄 판결…정치행보 확대 가능성

전대·야권통합 구도 영향 불가피

"무죄입니다"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달러 등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가 지난 31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자금 수수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를 당했으나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정치적 난관을 극복해가는 정치인으로 인식되면서 주가도 급상승하고 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민주당의 전당대회 구도는 물론 야권대통합 및 연대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 전 총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의 양강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그동안 관망세를 보였던 친노 그룹과 당내 386 그룹이 한 전 총리 지원에 나서고 손학규, 정세균 의원 등도 측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 밖의 '혁신과 통합' 그룹과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한 전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친노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내 일부 정파에서는 한 전 총리 측에 전당대회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검찰로부터 두 번이나 기소당한 한 전 총리가 연속 무죄를 받음에 따라 정치적 역경을 극복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한 전 총리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야권대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공감대도 높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따라 민주당의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검찰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2심 재판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장 전당대회 출마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한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하기보다는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가 전대 출마를 강행하기 보다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대통합의 물꼬를 트면서 정치적 역할을 확대해 가지 않느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곧바로 전대 행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잡하게 얽힌 야권대통합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비전을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 겨냥한 與 쇄신바람

홍준표·원희룡, 혁신 우선순위 1번지 꼽아

여의도硏 공천개혁안 공개땐 '물갈이 논쟁'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한나라당발(發) 쇄신 바람이 청와대를 겨냥할 전망이다. 대안 부재론 및 당내 역학구도 때문에 '홍준표 체제'의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의 우선순위를 꼽자면 청와대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게 쇄신그룹 의원들의 대체적 견해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변화, 인적 쇄신, 정책 변화 등의 3대 과제를 꼽으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각오를 보여주는 정치 변화가 필요하며, 그 중심은 청와대"라고 밝혔다.

당내 '혁신 8인방'에 속한 한 의원도 "혁신론의 신호탄은 청와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청와대 경호처장 임명이 고리가 될 전망이다.

이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잇따른 인사 실패가 현재의 여권 위기와 직결됐다는 판단이다.

정두언 의원은 어 경호처장 임명에 대해 "문책받은 사람을 다시 쓰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라며 "인사에 있어 대통령이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며, 앞으로 그렇게 안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10월 중 처리'라는 강경 입장만 고수한 채 리더십을 보이지 않는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쇄신·혁신 움직임은 인적 쇄신 및 공천 개혁, 정책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당 내에서는 '새 피 수혈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여의도연구소가 그동안 마련해 온 공천개혁안이 이르면 금주 중 지도부에 보고될 계획이어서 '물갈이 논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천막당사 시절과 같은 파격적 당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경호처 업무를 개선하는 조직개편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정의가 정치검찰 이겼다" 환영

한 전총리 무죄 선고

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용섭 대변인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짜맞추느라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이 땅의 정의가 정치검찰을 이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사는 지난해 한 전 총리에 대한 다른 뇌물수수 사건의 무죄가 예상되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이라며 "이제 정치 검찰이 국민 앞에 설 자리는 더욱 작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리한 보복 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정치 검찰에 사법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 단죄한 것으로, 사필귀정이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친노(親盧)계 인사인 백원우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유죄를 받은 것과 같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 검찰의 추악한 공작이 국민 앞에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두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 그리고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초유의 탄압을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근혜 전면등장론' 찬반 팽팽

정몽준 "책임질까봐 안나서겠다는 건 무책임"

친박계 "국민 체감할 정책발표하는 것도 개혁"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쇄신론으로 어수선한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 전면 부상론'을 놓고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와 소장 개혁파는 박 전 대표가 위기 상황인 만큼 전면에 나서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박(친박근혜)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에는 당내 정파 간 이해관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3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대권주자는 대표를 못 하도록 한 당헌은 제왕적 총재 시절 규칙으로 거기에 집착하거나 지금 나섰다가 앞으로 사태를 책임질까봐 안 한다는 것도 조금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표 쪽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흠이 갈까봐 대세론에 안주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박 전 대표가) 몸조심해 온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부자가 아니란 게 드러났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그러나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지도부를 바꾼다고 당이 변화하고 쇄신하는 것이냐"며 "박 전 대표가 국민과 자주 만나면서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제시하고 동시에 당도 개혁 행보를 보인다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당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박 전 대표는 당의 소중한 자산인데 전면에 나선 상태에서 당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삿대질을 한다면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증인채택 이견

정보위 경찰청 국감 무산

지난 31일로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파행하다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황우진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과 관련,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감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오늘 예정돼 있던 국감이 파행을 맞았다"며 "업무보고나 기자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대신하려 했지만 이 역시 야당의 반대로 힘들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우리가 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 해킹 피해자인 조선대 교수와 기무사 관계자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여당이 이 사건을 묵살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회창 "총선 보수연합 불가능"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지난 31일 "총선 때까지는 보수연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총선이란 것은 지역구 쟁탈전인데 무슨 보수연합이 있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대선 정국으로 가면 보수연합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다"며 "이는 한나라당 중심의 줄세우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 노무현 정부와 같은 좌파 정권의 출현을 막기 위해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통합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념이나 정체성의 공감은 없고, 당선 하나 따내기 위해 하는 거래"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스타박스빌딩매매(8층)
-분양면적 : 450평
-전용면적 : 300평
-매매금액 : 13억원
-모든 업종 가능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월2200만원
-융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월 650만
-융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수완지구 상가 분양 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고급식당
독서실·PC방·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062)961-3377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도시형 주택전문)
• 수익성상가 • 안전한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건축·분양 임대
(검토부터 기획마감까지 원스톱)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해드립니다.
★원룸 상가 기타 건축할수 있는 토지 항시 구합니다★
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안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